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호 【루계 제25145호】 주제105(2016)년 1월 2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21세기全民학습의 대전당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당의 명도 따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명마루로 비약해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떨치며 천도개벽된 과학의 섬 속섬에 새세기全民학습의 대전당으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이 준공되었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웅장하게 솟아오른 과학기술전당은 당의全民과학기술인재화방침이 완벽하게 반영되고 날로 발전하는 주체적 건축예술의 극치, 상징으로 되는 기념비적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애국의 호소따라 산악같이 펼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만리마속도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전당을 로동당시대의 국보적인 건축물로 완공하였다.

우리 인민모두가 찾아와 마음껏 지식의 랍을 쌓을수 있는 과학기술전당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명정건축물로 일떠선것은 과학기술발전을 강성국가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높은 과학기술의 소유자가 되려는 인민의 강렬한 지향을 세계앞에 보여주는 일대 사변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새해 주제105(2016)년 1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 만세!》,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자!》,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구호와 글발들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동지, 로동철동지와 건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인민군군인들, 건설자들, 지원자들, 과학기술전당의 일꾼들과 종업원들,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기관, 기업소 일꾼들, 과학자, 교육자, 청년학생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고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어全民학습의 대전당을 세계적인 건축물로 회한하게 일떠세워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오수용

2 번 으 로 계 속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21세기全民학습의 대전당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1 면 에서 계속

준공식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고 온 나라가

총정의 맹세로 설레이는 뜻깊은 설날全民 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전당은 위대한 우리 당이 지식경제의 시대인 21세기에 우리 인민들에게 마련해준 최신과학기술보급의 거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건설력량도 무어 주시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찬바람부는 건설현장을 몸소 현지지도하시면서 전당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누구나 지식의 랍을 쌓을수 있는 웅장 화려한 과학기술의 전당을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은 전당의

구석구석마다에 뜨겁게 어려여있다. 과학기술전당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다기능화된全民학습의 대전당이며 위대한 김정은시대 주체적건축예술의 본보기이다.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게 꾸려진 세계최상급의 과학기술 보급기지가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또 하나의

배움의 전당을 가지게 되었다. 평양의 명당자리에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은 건축미가 독특하고 조형 예술적으로 완벽한 하나의 대걸작품이며 21세기 주체적건축예술의 표본, 국보적인 건축물이다.

3 면 으 로 계속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21세기全民학습의 대전당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2 면 에 서 계 속

연설자는 우리 당의 전면과학기술인 제화방침을 피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흑심한 강추위와 무더위속에서도 낮과 밤이 다르없는 결사전을 벌리며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이 방대한 자료기지를 성과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내각과 성, 중앙기관, 련관 단위 일군들, 평양시안의 인민들도 어머니당에 대한 충정심을 안고 건설에 탐과 지성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말하였다.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찾아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방대한 건설을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낸 인민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워 가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경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모든 부문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기 위한 새해의 총진군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펼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는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세계를 앞서나갈 비상한 각오로 선진과학기술을 배우고 또 배우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인민군인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며 모든 부

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의 통마를 타고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의 열풍을 새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전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이 품을 들어 마련해준 모든 시설물들을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여全民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의 거점을 일떠세운 당의 평도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위대한 당의 평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과학기술로 강성변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장에는 과학기술을 사회주의 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시고 과학으로 인민의 탁원을 일떠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열화와 같은 흥모와 총정의 마음이 새차게 굽이쳤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경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레프를 끊으시

순간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과학기술전당이 우뚝 솟은 대동강만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였다.

준공식은 《행복의 래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의 내부를 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당의 구상이 구현된全民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이라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의 준공은 우리 당이 과학전진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과학기술전당운영을 잘하여全民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과학부문에서는 과학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자, 연구사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적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 영농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것과 함께 과학농사, 과학축산의 불길을 새차게 지퍼올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교육부문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한몫 단단히 할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과학자, 교육자, 기술자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증시사상과 21세기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며 과학탐구의 나래,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세계를 향해 파감히 나아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이 축하장을 보내어 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제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이 축하장을 보내어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연방 대통령,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몽골 대통령, 수리 아야라프공화국 대통령,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대통령, 헝가리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탄 자리노공화국 집정관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이 축하장을 보내어 왔다. 한편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국장,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소장이 축하장을 보내어 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제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일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제의 최고성지, 태양의 궁전을 찾은 그들은 혁명명도의 전기인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 시리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으며 군인생활과 인민 생활향상의 넓은 길을 열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땀이 모서져 있는 훈에 들어섰다. 회의 참가자들은 주제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땀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홍천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난해에 물고기산출을 높이 쌓아올리는 《이제어경》의 커다란 성과가 이뤄졌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참가 인사를 드려 있었다. 그들은 불세출의 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추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출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수산부문에서부터 군인생활과 인민생활향상의 물고기를 열어나가며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창조된 모범을 본사로 하여 온 나라에 새로운 천리마대교조의 불길인 더운 새해에 타탄 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제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주조 외교관, 무관단원들을 비롯하여 외국 손님들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으며 세계정치의 원로, 혁명의 대성인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이고 절세위인들의 땀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홍천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난해에 물고기산출을 높이 쌓아올리는 《이제어경》의 커다란 성과가 이뤄졌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참가 인사를 드려 있었다. 그들은 방문객들 곁에 남겼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국가의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주제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한편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국장,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소장이 축하장을 보내어 왔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주제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하시며 강성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주제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송환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땀을 모서져 있는 훈에 들어섰다. 회의 참가자들은 주제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땀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절세위인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홍천에서 그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참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추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출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수산부문에서부터 군인생활과 인민생활향상의 물고기를 열어나가며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창조된 모범을 본사로 하여 온 나라에 새로운 천리마대교조의 불길인 더운 새해에 타탄 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의 동상과 태양상에

새해를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주제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온 나라 천만군인은 뜨거운 경모의 마음을 안고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민족의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다. 새해의 첫 아침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추켜 드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전인민당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영원히 변형할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시고 누리에 빛내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은 군중들의 물결이 평양의 만수대언덕으로 굽어졌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 놓여 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부대 부대, 평양 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추켜 드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전인민당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영원히 변형할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시고 누리에 빛내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은 군중들의 물결이 평양의 만수대언덕으로 굽어졌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 놓여 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부대 부대, 평양 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한평생 민족구원선진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찍혀 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를 경탄시키며 영웅적인 불패의 기성과 위업을 떨쳐 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켜 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참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총화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민주대학장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에도 다함없는 총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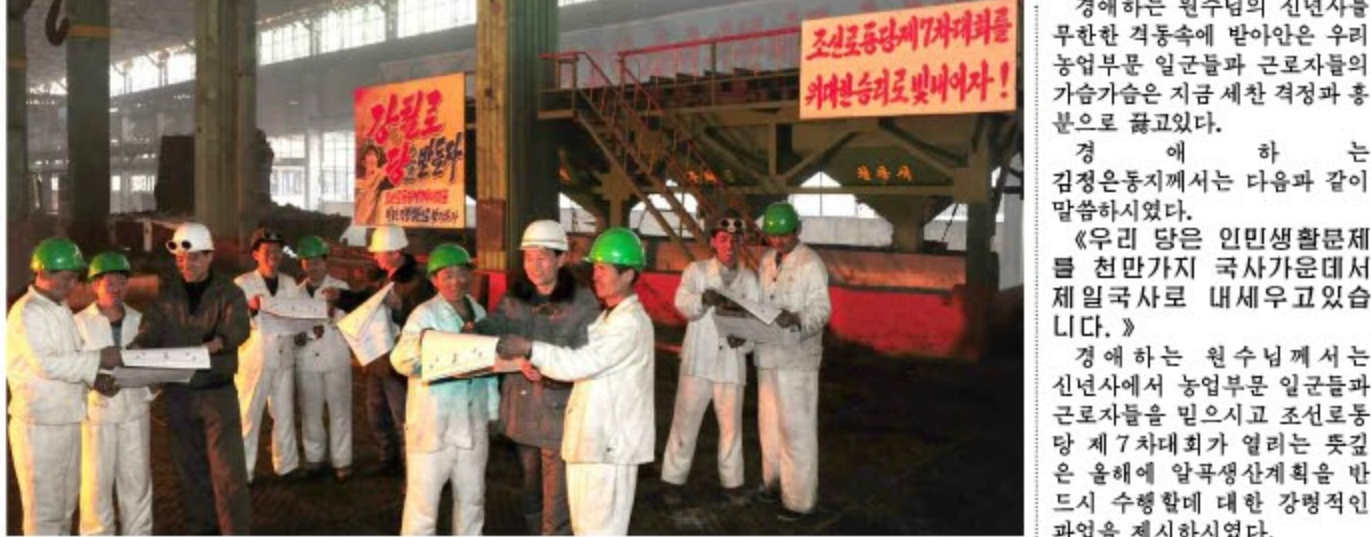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위대한 당의 백승의 위력 떨치며 최후승리를 당조직들이 전투력을 더욱 높이 떨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온 나라를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고 있다. 승리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새로운 신심과 락관을 뽐내주는 신년사의 사상과 정서는 뜻깊은 주제 105(2016)년의 역사적인 전군을 개시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후 70여성상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주제의 혁명적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 장장 수십성상 우리 당이 걸어 온 길은 참으로 험난하였다. 시련은 간고하였지만 우리 당의 지도사상과 혁명적정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로선과 원칙을 백년대계의 전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 당은 혁명적 대승리를 위하여 당의 건설을 승리로 인도하여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이 장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에 새긴 철의 신념이다. 올해에 열리게 될 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적 대승리를 이룩한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위대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비상한 열의와 불타는 각오에 넘쳐 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전격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제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수령님들의 사상과 뜻대로 진행해나가도록 하였다. 각급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사상과 유언을 생생히 되풀이하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였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백두산의 칼바람정신을 배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들로 든든히 준비시키며 그들이 수령의 유언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였다. 력사적인 당대회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것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심이었으며 당중앙을 따라 영원히 한걸음 가려는 억척불변의 의지였다. 혁명의 년대들에 마련된 고귀한 전통을 이어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떨쳐나가는 여기에 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군분담보가 있다.

올해에 우리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목표와 투쟁과업, 그 수행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도인의 인격과 결속력, 근로자들의 기세를 하늘을 찌를 듯 높여 줄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로를 밝혀준 전투적구호이다. 지금 도인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해 주제 105(2016)년을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성과 본래를 힘있게 파시하는 뜻깊은 해로 되게 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은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는 투쟁력을 더욱 높이 떨치게 하겠다.》

올해에 우리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목표와 투쟁과업, 그 수행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도인의 인격과 결속력, 근로자들의 기세를 하늘을 찌를 듯 높여 줄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진로를 밝혀준 전투적구호이다. 지금 도인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해 주제 105(2016)년을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성과 본래를 힘있게 파시하는 뜻깊은 해로 되게 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은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는 투쟁력을 더욱 높이 떨치게 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기쁨과 걱정속에 받아안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여기고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을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사회주의의 새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하려는 우리 당의 송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지 못했다면 자책감으로 얼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지난해의 경험과 교훈은 우리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자강적정신주의 높이를 높이고자 할 때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과감히 뚫고나갈수 있지만 그렇기 못하면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인민생활문제가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송고한 뜻을 기어 실현하기 위해 총결사전을 벌려나가겠다. 전인민적인 의지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결사전을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험풍비파만 당풍년의 농악소리 높이 울려 퍼지게 하라, 이것이 새해의 첫 기쁨이신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맹세이다. 우리앞에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대 제1선봉대로 서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면적 임무를 맡는다. 현실에 깊이 들어가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인민을 위한 길에 한눈이 그대도 바라보지 않는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투쟁해 나가겠다. 오늘날 사회주의혁명론은 우리 당, 우리 사상, 우리 계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총포성없는 대적전장이다. 우리는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개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반드시 풍년대를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천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총부, 혁명의 유능한 지휘관이 되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당중앙이 정해진 천리마대 전속으로 내달림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기여이 풍요로운 가을을 안아 오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농업성 부상 리재현

학생소년들의 주제 105(2016)년 설맞이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 진행

강성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 해준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온 한해 끝없이 꽃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희망찬 새해의 하늘가에 더 높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학생소년들의 주제 105(2016)년 설맞이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1월 1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후대들을 위해서선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로동당시대의 멋쟁이건 축물로 훌륭히 개건전 궁전은 《세상에 부럼없어라!》, 《새해》, 《축하》라는 글발들과 소년단 휘장모형, 특색있고 화려한 장식물들로 장식되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배방산기슭에서 첫막을 올린 데로부터 철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세기를 이어 펼쳐진 뜻 깊은 설맞이무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행복한 설날을 노래하게 된 학생소년들의 격정으로 공연장소는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우리 당의 후대판이 그대로 비친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에서 온 나라의 축복속에 새해를 맞는 크나큰 기쁨을 안고 학생소년들이 흥을 펼쳐놓은 환희의 춤바다는 명절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

동지, 양형섭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김봉태전기기관차량합기업소,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단위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과학자, 교원, 선수, 감독들, 만경대학혁명학원과 강안석혁명학원 원아들, 시안의 학생소년들, 청년동맹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

기구대표부, 무관부부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대표, 사회주의조국에 제후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공연은 시장 《경애하는 원수님 모시어 제일 기쁜 날》로 시작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은 원수님을 모신 설날이라고, 1년 365일이 날마다 설날이면 좋겠다고 노래부르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아이들속에 있으면 10년은 젊어진다고 하시며 해마다 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학생소년궁전의 밝은 불빛을 영원히 지켜주시려고 학생소년들이 기다리는 설맞이공연장소를 지나 전진시찰의 멀고 험한

옛이야기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 중창 《나의 조국 원수님 품아》,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의 음악무용이야기 《조선학교학생의 일기》, 전설극 《신기한 힘》, 5인무 《애국의 마음도 5점》 등의 작품들이 울렸다.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어머니사랑으로 후대들의 눈부신 미래를 펼쳐가는 내 조국은 곧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며 해외의 축복속에 더욱 밝아지는 내 나라의 아이들의 웃음띠킨 세상이라고 소리높이 자랑하는 출연자들의 노래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구연 《우리 집!》, 민족기악과 노래 《행복의 꽃대문》, 무용 《스키야영 신나요》, 《해 빛넋친 슬마장에서》, 《축구

학급 우리 선수들》, 노래와 무용 《행복이 파도쳐와요》, 교예 《나를 춤 봐》는 어머니당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과 헌신으로 마련해준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들에서 원한 복을 누려가는 학생소년들의 명량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지덕체의 품이라고 세계를 앞서 나가는 존엄높은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혈통, 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갈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랑하는 학생소년들의 긍지가 차넘치는 대중창 《소년단열병총대 앞으로》, 타악기를 위한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혁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갈것입니다.》

은 나라 모든 가정들에 화목과정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져기를 축원하시

평양음악원, 애육원과 양로원에서

끝없이 베풀어지는 따뜻한 사랑속에 꿈같은 환해서고 꿈같이 맞이한 새해입니다.

새해의 첫날 아침에 신년사를 마치시는 그 곁로 아이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서 평양음악원과 애육원에 찾아오신 우리 원수님의 품에 안겨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할 수도, 비가 내릴 때 뜨겁게 사랑과 정을 받아안은 원아들을 온 나라가 축복해주던 그때가 옛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훌러 또다시 새해의 첫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식탁마데 맛있고 영양가 높은 특색있는 음식들을 풍성하게 차려놓은것을 보니 원아들을 위해 명절준비를 성의껏 한것이 알린다고 그러도 기뻐하시며

뜨거운 사랑속에 맞은 희망찬 새해, 행복의 명절

은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축복속에 밝아온 새해의 첫아침입니다.

평과 노루고기음식 등이 오른 풍성한 식탁을 마주한 평양음악원, 애육원, 평양미림학원의 원아들과 평양양로원, 양성원의 로인들, 보양생들과 함께 수도의 금양봉사당들에 넘쳐나는 근로자들의 기쁨과 환희가 새해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었다.

같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러 온갖 로고를 다 바쳐 오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위대한 헌신의 자옥자옥이 어려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몸소 총지휘하던 대중강반의 명당자리에 떠전도 잡아주시고 건설장을 여러차례나 현지지도 하시면서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 인민사랑이 집약적으로 구현되어있는 사랑의 결정체, 행복의 보금자리를 일떠세워주시 경애하는 원수님, 건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변지지 않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에 맡겨 주시고 그 수량까지 몸소 수첩에 계산해보신분이 바로 우리 원수님이시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어머니 그 사랑속에 대중강반이 유훈히 감동아르르는 경치좋은 이곳에 온 한해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넘치고 통래포구의 《이재어경》이 원아들과 보양생들의 식탁우에 그대로 펼쳐져 되었으며 오늘날은 새해 첫아침에 또다시 맛있고 영양가 높은 평과 노루고기음식들을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맛보게 된것이 아 닌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이들은 여러차례의 토의사업과 로해를 진행하고 현지로시찰의 로리기술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정병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우리 당의 파사로운 사랑속에 천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행복넋친 웃음소리와 그들이 부르는 환희의 노래를 그대로 담아서도 눈부신 시리꽃명동을 이룬 새해의 첫명절이다.

사랑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새해의 명절을 맞는 평양음악원과 평양애육원의 원아들과 공결같은 새 집에서 인생의 락을 누려가는 평양양로원의 보양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희망찬 새해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 퍼졌다.

김성민

창광음식점거리를 돌아보며

어이하어 우리 인민은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품결에서 조차 그 손길을 더듬어 찾는 것인가.

새해의 이재로운 풍경을 펼친 창광음식점거리를 돌아보며 우리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토록 것이 마음쓰는 어머니당의

높은 눈사람과 소나무장식 등은 새해명절의 운치를 한껏 돋우어 주고 조선치마차고리, 마고자들을 아름답게 차려입고 나신 봉사원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다.

더우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명절음식들이었다.

평고기구수와 온반, 떡국, 메기탕, 경단, 수정과는 비롯하여 이곳 저곳에서 봉사하는 음식의 가지수는 너무나 많아서 미처 다 꼽을 수 없을 정도였다.

메기토막튀김, 메기편 튀김, 메기꽃튀김을 비롯하여 새콤하게 만들어 내놓은 메기토끼들은 정말 맛이 있다고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뛰어뛰다해도 이번 명절음식들 가운데서 가장 손꼽히는것은 평고기구수와 노루불고기였다.

귀한 평과 노루까지 받아안고 보니 어머니당의 열화같은 인민 사랑에 가슴이 젖어들었다고 하며 창광봉사관리국 부국장 박준근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들려주었다.

어떻게 하면 당의 뜨거운 사랑이 새해를 맞는 인민들에게 더 잘 갈고게 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온 관리자 들끓었다. 로리기술집안이 진행되고 며칠전에는 음식특별회를 열고 우수 단원들의 경험을 적극 터려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새 집기류들로 명절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지고 음식물들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힘도 다 짜내서 배정하면서 풍성한 식탁을 장식하였거던 하였다.

철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격사가 뜨겁게 흐르는 창광음식점거리에 새해를 맞은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할 일념을 안고 힘과 지혜를 합쳐온 이데였었다.

이렇게 애써는 보람이 있어서 인가 창광봉사관리국과 사회계열식당을 비롯하여 평고기구수를 봉사하는 식당들에서 밝은 웃음을 지으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도모르게 눈길을 끌고 있었다.

《새해를 맞는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려 평고기구수까지 마련 하여 행복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려준 당의 고마움에 가슴이 젖 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파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서서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 데 모든것을 다 바쳐나갔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인

본사기자 김명훈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를 펼치며 광명한 미래 향해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환희의 불보라

희망찬 새해에 즈음하여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

필승의 신심드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높은 정치적일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끝없는 환희와 광만에 넘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다.

조국청사에 또 한해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질 주제 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김일성광장과 만수대언덕,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방안에는 수도의 밤하늘에 펼쳐질 아름답고 환혼한 경축의 불야경을 보기 위해 모여온 각 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군중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힘을 생명선

으로 들어리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따라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새로운 조선속도, 평양속도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역사를 수놓아온 긍지높은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축포가 터져오를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에 특기할 2016년의 장엄한 진군의 포성인양 1월 1일 저녁 9시 장쾌한 축포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눈부신 불꽃들이 밤하늘을 꿰지르며 솟구쳐올라 장엄한 불의 화폭을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래양기가 휘날릴 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

운 슬기로운 고무추동할것입니다.》

《일어나 내려라, 《인민의 환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기묘모한 축포들이 터져오르며 태양의 축복받은 선군조선의 하늘을 황홀하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활짝 꽃피우시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의 긍지와 기쁨이 갖가지 구슬같은 불꽃들에 실려 드넓은 상공에 번속 꽃구름을 피워올렸다.

각양각색의 축포란들이 터쳐 울린 천갈래, 만갈래의 불보라를 바라보는 군중들은 끝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이 땅우에

세상에 없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시며 선군의 위력으로 더욱 굳건해진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속에 이 땅에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매일이 달라지는 전변의 새 역사, 새로운 천리마대조선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진정 지나는 한해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온 긍지높고 보람찬 한해였으며 위대한 땅의 두리에 천만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붙쳐 위훈과 기적을 창조해온 중정의 날과 달들이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여

광명한 미래로 나아가는 내 조국의 모습인양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달려가자 미래로》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변이여 터져오른 경축의 불꽃들이 수도의 밤하늘에 신비의 일만경을 펼쳐놓았다.

한갈래씩 불교리를 끌며 야공에 아득히 솟아오르기도 하고 한꺼번에 천발불꽃같이 일시에 솟구쳐올랐다가는 서로 교차되며 타래치는 장쾌한 불보라들은 관중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상조물들을 일떠세운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을 비롯한 수도의 근로자들과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행복만을 누려가는 새 세대들의 기쁨넘친 모습들...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리는 열정의 불보라, 오색찬연한 빛발들이 터져오르는 축포를 격정속에 바라보며 군중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대를 이어 수명복, 태양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끝없는 환희를 격조높이 구가하는 《북방은 인민의 노래》가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고 지샘줄 모르는 수도의 밤하늘에 황혼경의 천만화환을 재운 축포가 번속 터져올랐다.

천만번화하는 불의 화폭, 끝

없는 열정과 기백이 맥박치는 경축의 불보라, 지심을 뒤흔드는 장엄한 축포성은 승리의 5월을 향한 대조선전군에서 새로운 천리마, 만리마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날에 날마다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갈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가슴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의 붉은 기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할 천만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 주며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삶의 순간순간을 창조와 혁신으로 수놓아갈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에 충만된 군중들의 마음이 담아 끝없이 작렬

하는 불꽃들이 평양의 밤하늘을 더더욱 붉게 물들여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광명한 미래를 축복해주며 수도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새해의 불보라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수령을 반드시 앞당겨오고 야망 천만군민의 역학같은 신념과 필승의 기상인 분출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의 대외, 영광의 대외로 빛내일 것이다.



지하공전에 높이 울리는 자강력제일의 기적소리

우리의 첫 지하전동차 1월 1일부터 운행 시작

【평양 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주제105(2016)년을 맞이한 온 나라에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더욱 활짝 꽃피며 넘쳐나는 환희의 불야경을 더해 주며 평양지하철도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지하전동차가 첫 운행을 시작하였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지닌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단 몇달동안에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해내는 자방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새해의 첫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첫 지하전동차를 타고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인민의 기

쁨과 광만은 더없이 컸다.

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우리의 첫 지하전동차의 탄생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 백두산대국의 무적막강한 자강력으로 사회주의강성부흥을 하라 무빨리 인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지하전동차는 평양지하철도의 붉은별역-부흥역구간에서 달렸다.

미남자처럼 잘 생긴 새 지하전동차에 오른 각계층 근로자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안내인의 친절한 봉사를 받으며 불빛찬연하고 아늑한 차칸에 들어선 사람들은 현대적으로 꾸러진 지하전동차의 내부를 둘러보며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려행에 편리하게 만든 안전손잡이를 씌어보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 로인들, 특신한 의자에 앉아 어쩔줄을 모르는 아이들, 실내용도와 습도, 도착할 역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게시하는 정보안내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학생들.

김종래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작업반장 박문선은 이렇게 말하였다.

새해의 첫날에 이렇게 우리가 만든 전동차를 타니 기업소를 찾으시고 지하전동차를 보아 주시며 것처럼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른다.

온 나라 인민이 단잠에 드는 깊은 밤에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는 전동차를 타시며 헌신의 고고를 바쳐가신 철세위인의 인민사랑의 자욱이 안개와 가슴 뜨거워짐을 곱할수 없다.

가족과 함께 통일역에 들어선

제신성 정보통신연구소 실장 고성원은 우리가 만든 새 지하전동차의 첫 손님이 되고보니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들의 불같은 헌신을 전하는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오늘도 끊임없이 울려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싶다고 하면서 과학이 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들게 된다고 말하였다.

복해운성 국장 홍승철은 참으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애국애민의 로고와 헌신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라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국의 푸른 하늘에서는 우리가 제작한 비행기들이 날고 땅우에서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달려며 일떠세운 대기념비

적상조물들이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고있다.

또 이렇게 평양의 지하공전에서 우리가 만든 전동차가 달리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니 조식으로 강산이 변하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의 오늘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일해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감마든다.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를 운전해보니 다른 나라의것에 비해 속도도 좋고 제동상태도 나쁘지 않다. 설비, 원로자재의 국산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 파발을 더 많이 이룩해갈 애국의 열의에 넘쳐있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도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설비, 원로자재의 국산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 파발을 더 많이 이룩해갈 애국의 열의에 넘쳐있었다.

새해 첫 우표들이 나왔다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해 주제 105(2016)년의 첫 우표 (개별우표 2종)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글

이 씌여진 우표에는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를 배경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뽕이치기, 연례우기를 하며 새해를 기쁨속에 맞이하는 아이들의 밝고

명망한 모습이 형상되어있다. 또한 조국해방 70돐을 계기로 동경 127° 30'을 기준으로 하는 평양시간을 새로 정하고 적용한데 대한 우표도 발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이 남조선과의 일본군성노예문제협상《타결》에 대해 떠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보도들에 의하면 일본당국자들이 최근 남조선과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타결》하기로 합의한것을 놓고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늘어놓고있다.

빈집대기뿐인 《사회》와 녹거리자금지출로 일본의 극악한 성노예범죄행위를 덮어버리기로 한 이번 합의는 철두철미로 검토정정의와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치적용정의 산물

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주목되는것은 이번 합의를 놓고 미국이 서둘러 《축하》와 《전면적리행지지》를 운운한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남조선이 자들이 추진하는 침략적인 3강군사동맹에 뛰어넘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타결》을 부추겨왔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특정 한 나라의 조종이나 중재에 의해 어렵게 타협하여 해결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의 돈으로 어수룩한 상대나 얼터너브 해결할수 있는 문제는 더우기 아니다.

일본국가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녀성들을 상대로 감행한 성노예범죄는 국제적인 특대형인 인권범죄로서 그 피해자들은 조

신반도의 남쪽에만 아니라 북에도 있고 다른 아시아나라들과 유럽에도 있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국가의 법적, 도덕적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며 짓밟힌 명예에 대한 회복과 재발방지조치를 하라무랄히 취할것을 일관하게 요구하여왔으며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일본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포함하여 전쟁범죄와 특대형인 인권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를 이 납득할수 있게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